농림축산식품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12. 19.(목) 11:00 / 12. 20.(금) 조간 배포 2024. 12. 19.(목) 09:00

겨울철 차량 엔진룸 안에 숨어든 길고양이, 시동 전 노크로 생명사랑 실천하세요!

- 추위를 피해 차량 엔진룸으로 들어가는 길고양이, ①보닛 노크, ②차 문 세게 닫기, ③발 구르기, ④엔진룸 확인 등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방법 안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겨울철 길고양이가 온기가 남아있는 차량 엔진룸에 들어가 끼어 죽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생명을 살리는 길고양이 노크' 캠페인(2024.12.20.~2025.2.28.)을 추진한다.

본격적인 겨울 추위가 시작됨에 따라 길고양이가 공동주택 주차장 등 온도 변화가 심하지 않고 눈·비를 피할 수 있는, 겨울나기에 좋은 장소로 보금자리를 옮기고 있다. 때때로 온기가 남아있는 차량 엔진룸으로 들어가 잠드는 경우도 있는데, 운전자가 이를 모르고 시동을 걸어 길고양이가 안타까운 죽음을 당하거나 차량이 파손되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에 농식품부는 12월 20일부터 '차량 시동 전 노크로 생명사랑 실천하세요!' 캠페인을 실시한다. ①차량에 타기 전에 보닛을 똑똑 두드리기, ②차 문을 쾅 세게 닫기, ③자리에 앉아 쿵쿵 발 구르기, ④시동 걸기 전 경적 울리기(야간 등 이웃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시간대에는 자제) 등 말이 통하지 않는 길고양이가 인기척을 느낄 수 있도록 알리는 것이다.

이때 길고양이의 개체별 습성에 따라 스스로 튀어나오기도 하나, 위협으로 인식하여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 보닛 안에서 고양이 소리가 나는 것을 확인한 후 운전자가 직접 꺼내기 어렵다면 무리하기보다는 주위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농식품부 박정훈 동물복지환경정책관은 "차량 시동 전 노크 등 확인은 생명사랑의 실천과 동시에 운전자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고 강조하며, "평소에 주차장, 차량 하부 등 위험한 장소에서 먹이 주기를 자제하는 등 올바른 길고양이 돌봄 실천"을 함께 당부했다.

붙임 겨울철 길고양이 안전사고 예방 방법

담당 부서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임영조 (044-201-2611)
		담당자	사무관	류도현 (044-201-262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 임 | **겨울철 길고양이 안전사고 예방 방법**

겨울철 길고양이 안전사고 예방



보닛 노크하기

(차량 탑승 전)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리는 지 확인하세요



소리와 행동으로 내보내기

(시동 걸기 전) 차 문을 세게 닫거나
좌석에 앉아 발 구르기 또는 경적을 울려주세요



근처에 길고양이가 많다면 확인 후 출발하기

(출발 전) 보닛을 열어 확인하고, 장갑을 착용 후
손으로 꺼내거나 간식으로 유인하세요



먹이 급여 자제하기

지하 주차장과 차량 하부, 도로 주변에서
먹이 급여는 자제해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길고양이 돌봄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